

시스템사고를 통한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동태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m's Evolution with Systems Thinking

최남희**

Choi, Nam-H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nd why each stage of capitalism grows and changes into the new direction in the moment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hrough the causal loop feedback structur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classifi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to 4 types: Capitalism 1.0(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2.0(Revised Capitalism), 3.0(Neo-liberalism), and 4.0(New Capitalism for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by which feedback structure the growth, crisis, and new transition of capitalism could be explain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nded positive feedback structure caused the growth at each early stage of capitalism. After that time, as a result of the uncontrolled growth, the negative feedback structure controlling its growth operated on the one hand, while the positive feedback structure amplifying the crisis di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uggests the Resilient Capitalism as the new evolutionary direction of Capitalism 4.0.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s resilience by which all the economic players can recover promptly and flexibly from the crises such as the failure of competition and unemployment.

Keywords: 자본주의 진화과정, 시스템사고, 자유방임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4.0
(Capitalism's Evolution, Systems Thinking, 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Revised Capitalism, Neoliberalism, Capitalism 4.0)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drnhchoi@ut.ac.kr)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중언이 고조되면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진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¹⁾ 최근에는 ‘자본주의 4.0’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진화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aletsy, 2010).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어도 지금까지 세 번의 발전과정을 거쳐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자본주의 4.0’이라는 새로운 단계의 진화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수용하여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자본주의 1.0, 2.0, 3.0, 4.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자 하였다(Kaletsy, 2010; 조선일보, 2011년 11월 19일자; 문화일보, 2011.08.19.; 신중섭, 2011).²⁾

물론 자본주의 진화단계에 대해서는 진화라는 용어 대신에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입각하여 경쟁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과정이라고 보는 반자본주의론자들의 비판적 시각과 이론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김성구, 2011; 김수행, 2011).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가 다수의 서구자본주의학자는 물론이고 국내의 진보적 경제학자들까지 사용, 또는 인식되고 있으므로 그의 구분을 통해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정의하고자 하였다(Geoffrey et.al, 2001; 신중섭, 2011; 최종태, 2011; 조동성, 2012; 김진영, 2013).

이른바 서구자본주의의 주류 이념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자본주의 1.0, 2.0, 3.0, 4.0으로 구분할 경우 자본주의 1.0은 ‘자유방임 자본주의(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자본주의 2.0은 ‘정부주도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 자본주의 3.0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그리고 자본주의 4.0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모색된 칼레츠키의 ‘적응성 혼합 경제(Adaptive Mixed Economy)’와 같은 ‘미래의 자본주의(New Capitalism for the Future)’라고 할 수 있다(Kaletsy, 2010; 조선일보, 2011.8.2.).

1)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1776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서구자본주의를 의미한다.

2) 이러한 용어는 ‘자본주의 4.0(Capitalism 4.0)’의 저자 Anatole Kaletsy가 소프트웨어 버전처럼 진화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여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나타낸 것이며, 조선일보가 ‘자본주의 4.0’이라는 기획특집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자본주의의 진화를 가져온 기본철학과 그 발전구도, 그리고 다음단계로의 전환기적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위기와 발전요인들을 열거하거나 일방향적인 인과관계들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과 구조적 위기를 주장하는 최근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위기의 논리를 강조하기는 하나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동태성을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시스템사고를 통해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기본철학과 성장체계, 위기,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동태성을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바 먼저 자본주의의 개념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검토하고 이를 시스템 사고라는 시각에서 재정의 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자본주의의 역사발전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학자들의 시각과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매우 방대한 논의가 있는바 자본주의의 동태적 진화에 대한 중요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진화와 관련된 접근시각, 성장체계, 위기,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변수와 논리적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화이론에 대한 검토와 탐색을 토대로 분석체계를 정립하고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 대한 시스템사고의 원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자본주의 진화과정을 자본주의 1.0에서 4.0까지의 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의도된 성장을 하고, 의도하지 않은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다음단계의 전환을 모색하였는가에 대해 앞에서 도출된 분석체계와 시스템사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1.0에서 4.0에 이르는 진화과정 중에서 지나간 자본주의의 진화과정보다는 자본주의 3.0에 해당하는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등장, 발전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왜 치명적인 전환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진화방향으로서 자본주의 4.0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서구 및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지금까지의 진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면하게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화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여기에는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진화메커니즘으로 작동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자본주의와 그 진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시스템사고를 통한 분석 틀의 정립

1. 자본주의의 개념정의와 시스템사고를 통한 재정의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서 브리태니커 사전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봉건제도의 붕괴 이래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사적으로 소유되며 주로 시장의 작동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분배되는 서양에서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이며,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정의할 경우에는 이러한 브리태니커 사전에서와 같이 ‘자본을 통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그 태동부터 지금까지 이를 정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담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미국과 영국의 서구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자본주의를 지난 200년 동안 진화해 온 세계의 정치경제라고 보는 신념을 갖고 있다.⁴⁾ 그러나 반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모순과 위기를 갖고 있는 체제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개념 정의들을 아담스미스(Adam Smith), 마르크스(Karl Marx), 막스 베버(Max Weber),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슈페터(Joseph Schumpeter), 그리고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개념을 시스템사고를 통해 재정의 해 보고자 하였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스미스는 자본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교환, 즉 생산과 소비라는 상호작용 행동을 하여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동들의 균형이 국가의 간섭 없이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체제라고 보았다. 여기서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국가의 부는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교환과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로 간의 이익과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게 되면서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자본주의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신중섭, 2014:1-20).

초기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비판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기반으로 생산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생

3) “자본주의”. 브리태니커사전. (<http://www.britannica.co.kr/>, 2014.9.5.일 확인)

4)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산양식”으로 보았으며,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임금만을 노동의 대가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양식을 통해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보았다(위키백과, 2014a).

마르크스와 달리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자본주의를 정의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정신이란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이며 이의 실천결과로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보았다(고원, 2012:329-346).

케인즈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기는 하나 이 제도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케인즈는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자유방임자본주의에서는 크게 수정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안정된 고용과 더 평등한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83.2.16; 오키시오 노부오, 2012).

한편,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를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생존가능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했던 슈페터는 ‘자본주의 · 사회주의 ·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비합리적이며,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즉, 슈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인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쇠퇴시키는 요인을 만들어내 붕괴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슈페터, 2011; 위키백과, 2014b).⁵⁾

한편,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자본주의 대한 정의는 주로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국가와 독점자본이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주기적, 구조적 위기를 계속해서 해결해나가는 생산양식 및 자본축적 체제로 보고 있다(김수행 · 김성구, 2011: 255-273).

자본주의의 개념 정의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본주의 개념은 긍정적 · 부정적이기도 하며,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소유하는데 모든 활동의 작동메커니즘이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해 온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08.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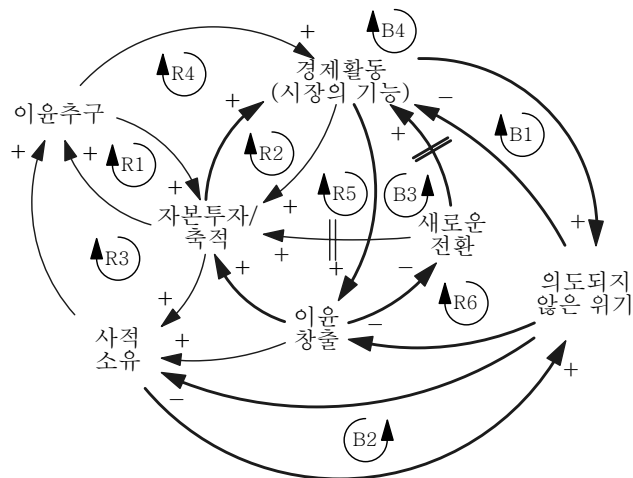
이러한 자본주의의 개념들을 시스템사고에서 강조하는 ‘동태적 사고’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⁶⁾ ‘자본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성장을 추구해 온 체

5) 슈페터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슈페터, 2011).

6) 시스템사고에서는 동태적 사고, 피드백 사고, 사실적 사고를 강조한다(김동환, 2004).

제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총체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이를 극복해 온 끊임없이 역동적인 발전과정의 산물'이라고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사고에서 강조하는 '피드백 사고'라는 접근시각에서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동태적인 발전과정에는 생산, 소비, 자본, 이윤, 시장, 국가, 금융 등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 간의 '의도된 성장의 피드백구조'와 '의도되지 않은 위기의 피드백 구조' 그리고 '새로운 전환을 위한 탐색적 피드백구조'가 작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사고에 입각하여 재정의 한 자본주의 개념과 기본구도의 동태성을 인과지도로 표현하면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다.

[그림 1]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사적소유 원칙이 이윤추구 행위를 하도록 하며, 이윤추구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생산·소비)과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결과 이윤창출에 따른 자본축적과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의도된 성장'을 의미하는 양의 피드백 구조에 의해 지속되는 작동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R1, R2, R3, R4, R5).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과 사적소유의 활동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특정한 시공간에서 자본주의 메커니즘에는 의도되지 않은 주기적·구조적 위기가 초래되어 경제활동과 사적소유를 제약하는 음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된다(B1, B2, B4). 또한, 의도되지 않은 위기는 이윤창출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자본투자 저하에서 경제활동 위축, 그리고 이윤창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R5).



[그림 1] 시스템사고를 통해본 자본주의의 개념과 기본구도의 동태성

한편,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도하지 않은 위기가 초래되어 경제활동과 이윤창출을 위축시키게 되면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전환이 모색되어 시간지연이 걸리기는 하지만 경제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적응적으로 조절하거나 새로운 방향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다시 의도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R2, R5의 재 작동). 또한, 이윤창출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3). 그러나 새로운 전환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활동과 시장기능이 성장하고, 사적소유 체제가 확산되면 또 다시 의도되지 않은 위기가 커지게 되는 양의피드백 루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R6). 이러한 피드백구조의 작동 메커니즘이 바로 자본주의의 동태적인 진화과정을 보여준다.

2. 자본주의 진화이론에 대한 검토

자본주의는 ‘모든 개인이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체제’라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제반 질서와 발전구도가 형성되어 왔으며, 자본주의의 위기 또한 이러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자본주의 체제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지만 총체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진화의 모멘텀(momentum)으로 삼아 스스로 수정하며 진화하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여줘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유기체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1.0에서 4.0으로 전개되는 성장, 위기, 그리고 새로운 전환의 진화과정을 시스템사고를 통해 분석해 보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 발전, 이행, 진화 등 표현은 다르지만 자본주의의 계속된 변화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본주의의 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시스템사고를 통해 자본주의의 진화와 관련된 분석적 사고의 원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지난 200년 동안의 자본주의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어떤 사건들은 전 세계의 경제상황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붕괴되지 않았으며 점점 더 진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자본주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진화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조차도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환경변화와 위기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체제로 보고 있다. 브로델은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하여 카멜레온 같다고 부르며,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재규정되지만 이 또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자본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Braudel, 1997).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자본주의는 왜, 어떻게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특성의 시스템적 동역학이 작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

답을 얻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영역에서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스템사고의 원형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먼저 자본주의 4.0의 저자 칼레츠키는 자본주의는 위기의 역사적 국면들을 극복해나가며 유기체처럼 진화해 왔으며,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근본주의를 수정하는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진화할 수 있는 논리를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시행착오와 오류수정의 반복을 통해 최악의 극단적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장체제에서 찾고 있다(Kaletsy, 2010).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시장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우연적인 선택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의 연속에 의해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김미경, 2012:317).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브로델(Braudel, 1987)의 ‘주기적 변화를 보이는 시간(conjoncture)’과 ‘장기지속의 시간(longue duree)’이라는 이론을 꼽을 수 있다. 주기적 변화를 보이는 시간이론에서는 자본주의를 물가변동과 같이 상승과 하강의 순환을 그리는 체제와 같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장기지속의 시간은 자본주의가 세계경제 체제라는 공간에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자기변신 해 나가는 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에서의 독점과 헤게모니 변화의 주기적인 순환에 의해 축적의 체제 또한 장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Arrighi, 1994:7; 백승욱, 2001:8-38).

반면, 슈페터의 장기파동이론은 경기와 기술혁신 간의 순환적 성격을 통해 자본주의의 진화를 주기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슈페터에 의하면 기술혁신에 의해 발생하는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이 경제체제 안에서 발전할 때 기술경제 차원과 사회제도적 차원 간에 변동속도의 지체현상이 발생하여 장기파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에서 장기파동은 기술혁신의 연속적인 교체과정과 여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반응이 자본주의 진화의 발전양식으로 나타난 것이다(Schumpeter, 1939:73). 즉, 기술혁신이 이윤창출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제도적 작동기제들이 원활하게 연결되면 경제성장과 같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혁신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서문기, 2003:35).

슈페터 이후 자본주의의 장기파동을 주장한 프리만(Freeman C.)과 같은 신슈페터리안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기술혁신체제의 변화가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변동시킴으로써 산업혁명 이후 네 번의 장기파동 시대가 나타나는 경제순환을 거쳤다고 말한다(한성안, 2004:136).⁷⁾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의 동태성(The dynamics of capitalism)’을 연구한 Scherer(2010:15)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켰으며 또한 기업의 소유구조와 노동

자(소비자)와 자본가 간의 소득의 분배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생활표준들(living standards)에서 커다란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붕괴하지 않고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자본주의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이 주요 문제가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자본주의가 주는 혜택의 동태성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아글리에타(Aglietta)의 ‘조절이론(Theory of regulation)’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가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케인주의의 파산이라고 불리는 위기에 직면한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을 새로운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경제학은 물론 마르크스경제이론을 비판하며 자본주의 진화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조절이론은 자본주의를 위기 때마다 무정형적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온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즉,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특정 시기에 특정한 형태의 조절양식을 통해서 존재하거나 발전해 왔다고 본다. 조절이론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축적과 재생산과정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틀에 의해 유지·발전되다 불안정성이 증대되면 기존의 조절양식으로는 더 이상 축적과 재생산과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폭발하고 새로운 조절양식(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및 절차, 제도의 총체)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Aglietta, 1979: 구춘권, 2008:141-164;이병천 외, 2013:139-176).⁸⁾

또한,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이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매우 다양한 시장경제 유형과 특징을 가지면서 발전해온 것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는 자본주의가 이념적으로 단일한 유형으로 수렴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경제 제도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재(새로운 제도의 도입, 조정과 협력 등)를 자기강화 하는 방식을 통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본다(Hall & Soskice, 2001). 이 이론은 결국 자본주의는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국가독점 자본주의처럼 변형에 의해 붕괴되지 않고 진화한다는 논리를 근간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진화생물학의 ‘줄달음 선택이론(Runaway selection)’은 메이어와 커비(Meyer & Kirby, 2012:66-75)가 ‘줄달음 자본주의(Runaway Capitalism)’라는 논문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와 진화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 줄달음선택이론은 암컷 공작새가 수컷공작새의 커다란 꼬리만보고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가 오랫동안 유전이 되어 공작새 꼬리가 계속 커짐에 따라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공작새의 멸종을 초래한 것을 비유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가 투자수익률과 경쟁우위 같은 지표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위기에

7) IT, BT에 기반한 산업이 주도하는 오늘날은 다섯 번 째 패러다임인 장기과동에 해당된다.

8) 2차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황금기는 포드주의적 조절양식의 결과였지만, 70년대에는 지속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로 인해 새로운 조절양식이 등장했다.

직면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을 이끌고 가는 행복이나 사회적 가치, 협업과 개방 등과 같은 새로운 지표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 1〉 자본주의의 진화(성장과 위기)에 대한 주요 이론과 내용

이론	내용
▷기술혁신과 장기파동 이론 (Schumpeter, 1939)	- 기술혁신체제의 변화가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제도를 변화시킴 - 기술경제적 차원과 사회제도적 차원 간의 변동속도 차이가 파동을 초래
▷순환적 시간과 장기 지속론 (Braudel, 1997)	- 독점과 헤게모니의 주기적 순환 - 자본주의는 더 높고 안정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
▷조절이론 (Aglietta, 1979)	- 자본주의는 특정 형태의 조절양식을 통해서 존재하거나 발전 - 불안정성이 증대되면 축적과 재생산과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폭발하고 새로운 조절양식이 등장
▷자본주의 다양성이론 (Hall & Soskice, 2001)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단일한 유형으로 수렴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시장경제 유형과 특징을 가지면서 발전 - 다양한 기재(새로운 제도의 도입, 조정과 협력 등)를 자기강화 하는 방식을 통해 역동적으로 발전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진화이론 (Kaletsky, 2010)	- 자본주의는 시행착오와 오류수정의 반복을 통해 스스로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장체제 - 자본주의는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우연적인 선택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의 연속에 의해 진화
▷진화생물학과 ‘출달음 선택이론’ (Meyer & Kirby, 2012).	- 투자수익률과 경쟁우위의 맹목적 추구가 자본주의의 위기 초래 - 전체적 가치의 증진보다 특정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반응체계(Feedback loop)가 강화되면 문제해결이 어려움

한편 자본주의의 진화이론에 대한 앞에서의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자본주의 1.0에서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과정이 각 단계별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떠한 성장, 위기, 전환의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 변수, 분석대상, 분석의 초점을 나타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은 각 단계 그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사고에 따라 자본주의 1.0에서 2.0까지, 2.0에서 3.0까지의 진화과정과 자본주의 3.0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주의 4.0의 진화방향으로 설정하였다.⁹⁾

9) 자본주의 1.0에서 2.0까지의 진화과정 분석에서는 1.0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2.0의 성장까지 분석하였으며, 자본주의 2.0에서 3.0까지는 2.0의 위기에서 3.0의 성장과 위기까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4.0의 진화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표 2〉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분석 틀: 중요 변수, 분석대상, 분석의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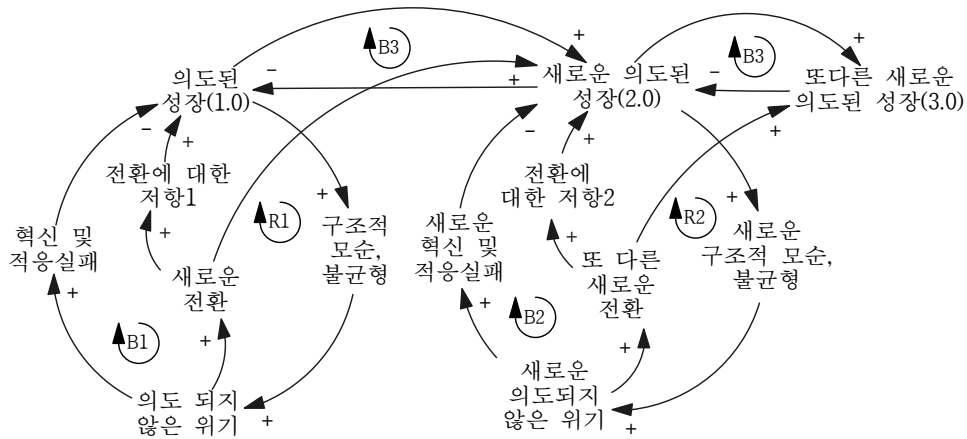
중요 변수	분석대상	분석의 초점	
		성장	위기·전환
시장의 기능, 보이지 않는 손, 정부의 역할, 정부개입, 보이는 손, 기업, 노동자, 생산양식, 수요, 공급, 자본투자와 축적, 노동, 고용, 실업, 임금, 조세, 장기파동, 주기적 공황, 혁신, 생산성, 무역, 금융자본, 산업구조, 독점, 경쟁, 이윤율, 불확실성, 규제(조절), 협력, 분배, 복지, 시장메커니즘, 신자유주의, 민영화, 재정적자, 세계화, 양극화, 불평등 등	자본주의 1.0에서 2.0까지의 진화	양의 피드백 루프	양의 피드백 루프
	자본주의 2.0에서 3.0까지의 진화		
	자본주의 4.0의 새로운 진화방향	음의 피드백 루프	음의 피드백 루프

3. 자본주의 진화과정에 대한 시스템 사고의 원형

앞에서는 자본주의의 동태적인 진화과정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론들을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 이들 이론들은 접근시각과 분석의 초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론에만 치우쳐 시스템사고를 적용하여 자본주의의 다양한 진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자본주의 진화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은 [그림 2]에서 도출된 바와 같은 시스템사고의 원형을 통해 그 동태성의 기본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림 2]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진화과정의 원형을 ‘의도된 성장(1.0)’에서 ‘새로운 의도된 성장(2.0)’과 ‘또 다른 새로운 의도된 성장(3.0)’의 단계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의 피드백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서는 먼저 이미 구축된 성장체계를 통해 앞에서 재정의 된바 있는 자본주의의 동태적 개념상의 ‘의도된 성장’을 달성하지만 의도된 성장이 계속되는 구조 속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들 사이에 구조적 모순과 불균형들이 심화되어 의도되지 않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내생적 혁신 및 적응이 실패하면 의도된 성장이 억제되는 음의 피드백 구조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1).

반면 양의 피드백 루프(R1)은 의도되지 않은 위기의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하지만 이는 기존의 자본주의 성장체제 내에서 전환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저항은 기존의 의도된 성장체제를 지속시키도록 하여 구조적 모순과 불균형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의도되지 않은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구조로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 대한 기본적 시스템사고의 원형

한편 음의 피드백 루프(B3)는 기존의 의도된 성장체계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의도된 성장체계’로 발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기존의 의도된 성장체계의 발전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새롭게 의도된 성장체계의 발전수준이 높아지지만 새로운 의도된 성장체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존의 의도된 성장체계는 점점 더 축소되는 자기억제적 피드백 구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은 계속해서 무한히 성장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장과 자기억제가 교차적이고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경로의존적 구조로서의 특성을 갖는 성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자본주의 진화과정은 계속해서 다음단계의 구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III. 자본주의 진화과정에 대한 동태성 분석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각 시대의 경제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변화를 모색하고 더 낫은 시스템으로 변화를 추구해 온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과정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며, 발전단계에 대한 시대적 구분도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진화시스템으로 보았으며, 그 과정은 칼레츠키가 그의 책 ‘자본주의 4.0’에서 사용한 자본주의 1.0에서 4.0까지라는 발전단계 개념을 사용하여 구분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1.0, 2.0, 3.0이라는 표현은 역사적·내용적으로 볼 때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1.0), ‘정부주도 수정자

본주의(2.0)',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자본주의(3.0)'로 이행해 온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구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¹⁰⁾

또한,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로서¹¹⁾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얼굴의 자본주의인 자본주의 4.0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시각과 표현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칼레츠키의 '적응성 혼합경제 자본주의(4.0)'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표 2>의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분석 틀과 [그림 2]의 자본주의 진화과정에 대한 시스템사고의 원형을 토대로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징과 성장·위기·전환의 동태성을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본주의 진화단계의 동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 논문에서는 진화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의 함수이므로 분석의 대상을 어느 한 단계가 아닌 자본주의 1.0에서 2.0으로의 진화, 자본주의 2.0에서 3.0으로의 진화, 자본주의 3.0에서 4.0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화 단계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은 이전 단계의 위기와 전환의 구조가 다음단계에서는 성장의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연속적인 진화과정에서 기인하며, 진화라는 것이 기존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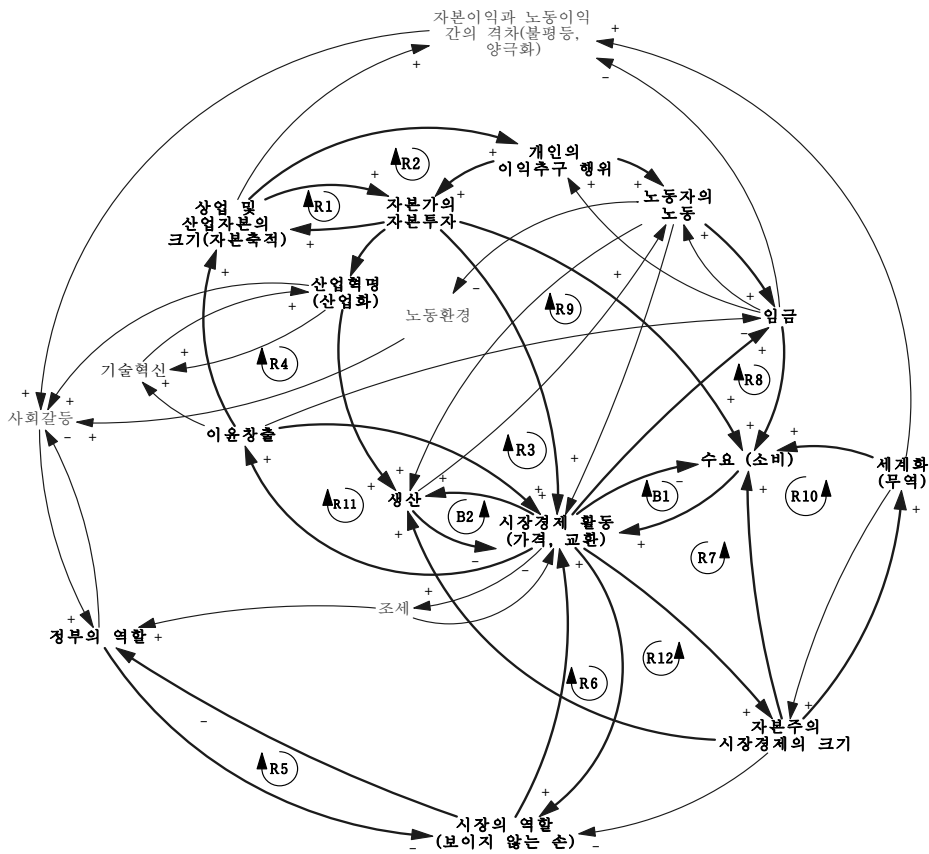
1. 자본주의 1.0에서 2.0까지의 진화과정에 대한 피드백 구조 분석

자본주의 1.0은 18세기 후반에 태동한 자본주의가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진화하다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하기 전까지의 자본주의 진화단계를 의미한다. 이 시기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심, 이익추구와 경쟁심의 바탕 위에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적인 생산방식이 아닌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새로운 생산방식의 경제활동(재화의 생산, 거래, 무역 등)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자본주의 1.0에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경제와 정치는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활동

10) 자본주의 1.0에서 3.0까지의 자본주의 진화단계에 대한 구분은 접근시각에 따라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각 단계의 시대적 구분과 기본철학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위기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간에 시각차가 매우 클 수 있지만 다수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자본주의의 발전 또는 이행 단계를 비판한다(Heilbroner, 2010).

11) 뉴 노멀(new normal)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국 경제의 역할 축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박문각, 2014).

으로 인식되었다. 정부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책임이 없었으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자본주의 1.0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 된 ‘공급과잉’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장만능주의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Kaletsky, 2010;조선일보, 2011.8.2., 조동성, 2012:23-47.).



[그림 3] 자본주의 1.0의 성장구조에 대한 인과지도

자본주의의 등장과 진화의 출발점인 자유방임자본주의는 [그림 3]의 인과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의 끊임없는 이익추구를 위한 의도된 선순환 구조인 자본투자와 축적활동(R1, R2)의 양의 피드백 루프, 그리고 이러한 이익추구가 자본투자 및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결과로서 발생한 이윤창출 및 자본축적, 그리고 계속된 자본투자(재투자)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백루프(R3, R4, R9, R11)에 의해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의해 생산과 수요가 균형을(B1, B2) 이루게 하는 시장경제 활동의 성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에만 더욱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곧 시장의 역할에 의해 시장경제 활동이 성공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 될 수록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고(R6) 그로인해 계속해서 시장경제 활동이 발전되는 반면,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되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R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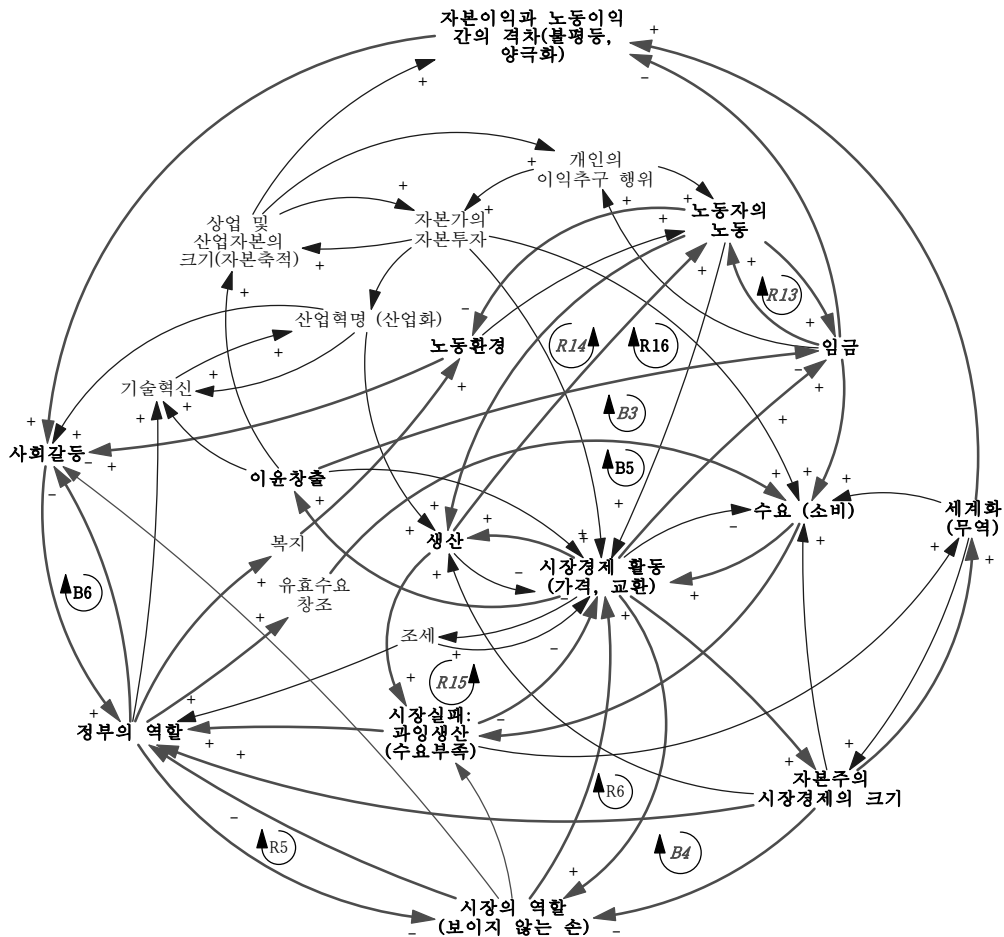
또한 자본주의 1.0의 진화구조는 시장의 성공적 역할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작동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생산과 수요 확대,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R7, R10, R12).

그러나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정부보다는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산물들인 부의 집중, 노동자들의 가난, 문맹, 빈곤 등과 같은 문제들이 증폭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자본주의 1.0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고도화된 생산력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억제적 구조가 나타나고, 시장이 이를 성공적으로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과잉생산(수요부족)이 초래되어 결국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초래되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1.0의 위기는 이윤창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임금 상승 억제와 그로인한 수요 감소, 시장경제활동 침체, 이윤창출 수준 하락, 임금억제로 이어지는 음의 피드백 구조(B3)가 나타나고, 과잉생산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경제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악순환구조(R15)의 등장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잉생산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었으며(실업, 불완전 고용), 이는 시장경제 전체에 소득(임금)감소에 따른 수요 하락과 계속된 과잉생산(수요부족)을 더욱 더 증폭시키고 말았다(B3, R13, R15).

또한 자본주의 1.0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었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증대해도 자본이익과 노동이익의 간극은 더욱더 벌어지게 되었으며(R14), 자본주의 경제활동이 지속됨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촉발된 사회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 1.0은 시장경제 활동의 조절역량 부족으로 인해 시장경제활동과 시장경제의 양적 수준은 확대되었지만 그로인해 보이지 않는 손만을 갖고 있는 시장의 역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시장의 기능에 심각한 한계가 나타났고, 결국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자초하여(B4의 피드백 루프로 인한 R6의 악순환),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2.0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이라는 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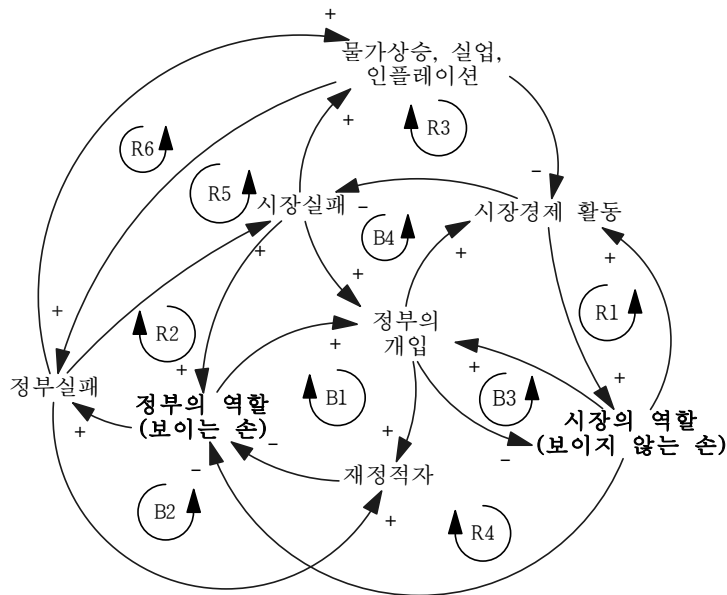


[그림 4] 자본주의 1.0의 위기와 자본주의 2.0의 성장구조에 대한 인과지도

자본주의 1.0의 위기 이후 등장한 자본주의 2.0은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가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기반과 뉴딜정책에서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대대적인 수정을 하던 시기였다. 자본주의 2.0은 케인주의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정부가 시장의 불안정성과 실패에 개입하여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위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환경의 악화와 불평등, 산업화의 부작용, 그리고 과잉생산(대공황)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발생에 따른 시장실패를 시장의 역할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그림 4의 점 선) 정부가 이를 맡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증대되고(R5), 반대로 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이르렀다(R6). 자본주의 2.0은 뉴딜정책과 같은 정부개입으로 고용증가, 소득증가, 수요증가, 시장

경제활동의 균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내는 값진 선물을 거의 다 붕괴되어가는 자본주의 1.0에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 주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2.0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는 손으로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줄이는데 성공하기는 하였으나(B4),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 나머지 시장의 역할에 의해 시장의 경제활동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R1)을 점점 더 떨어뜨렸다(B3, R4). 또한, 정부의 계속된 시장개입과 세계대전, 월남전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여 정부의 역할이 위축되었고(B1), 그 결과 정부실패가 증가하여 시장실패를 더욱 더 크게 만들거나 또 다시 더 큰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등 정부의 역할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R2, B2). 정부의 보이는 손이 실패하고 그에 따라 시장실패가 커지면서 물가상승, 실업 등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이는 정부실패를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구조를 초래하여 결국 자본주의 2.0 또한 위기와 종식에 직면하게 되었다(R2, R5, R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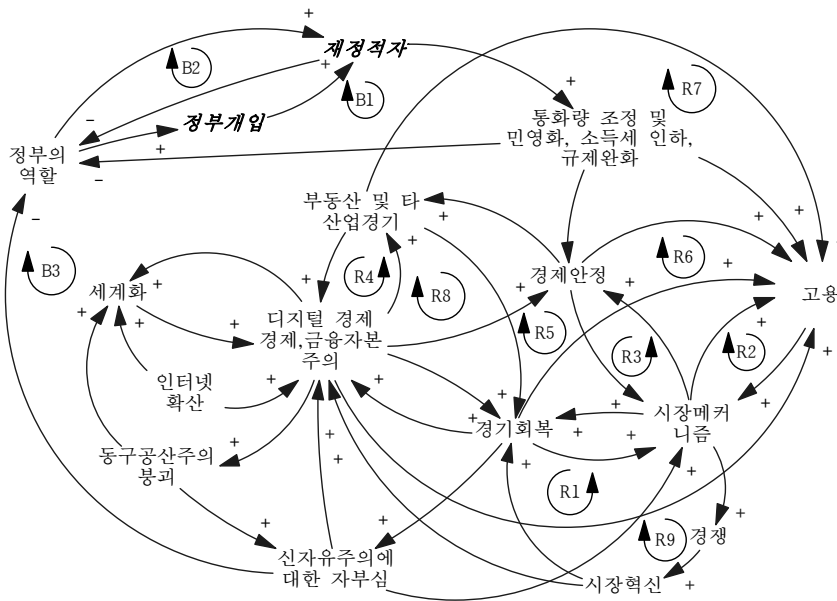
[그림 5] 자본주의 2.0의 위기에 대한 인과지도

2. 자본주의 2.0에서 3.0까지의 진화과정에 대한 피드백 구조 분석

자본주의 3.0은 자본주의 2.0과는 달리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표방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시대를 통해 그 서막이 열렸으며, 부시·그린스핀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해 그 가치가 고조되었다. 자본주의 3.0에서는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본주의 2.0에서와는 달리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담겨있는 효율지상주의, 시장만능과 자율, 무한경쟁 등을 강조하였다(윤상우, 2009:41-68; Kaletsky, 2010; 김미경,2012:330).

자본주의 2.0에서 자본주의 3.0으로의 진화에 대한 동태성 분석에서는 먼저 자본주의 2.0의 위기로 인해 부상한 자본주의 3.0에 해당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성장구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체제를 방해하지 않는 자유로운 투자와 자본 흐름, 시장논리의 확대를 강조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쟁체제의 유지나 시장 자유화 쪽에 중심적인 가치를 두었다(Meyer & Kirby, 2012:66-75).



[그림 6] 자본주의 3.0의 성장에 대한 인과지도

자본주의 2.0의 한계가 들어난 이후 집권한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는 신고전파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 시장메커니즘을 부활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리고자 하였다. 하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면서도(B1, B2)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통화량 조정, 민영화,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소득세 인하 등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안정을 통한 시장메커니즘의 부활과 경기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R3).

또 하나는 시장메커니즘의 부활을 통해 경쟁체제를 더욱 더 촉발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의 혁신을 가져와 침체되었던 경기를 회복시키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R9).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저금리정책, 그리고 디지털경제의 부상으로 일반서민들까지 금융과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등 금융산업의 대중적 확산과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R8). 그리고 금융산업의 호황을 가져온 이러한 양의 피드백 루프는 부동산 등 다른 산업분야로까지 흘러넘쳤다(R4, R5).

인터넷의 확산과 동구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고조시켰으며(R1), 이는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적어도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고용을 증가시켰다(R2, R7).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정부의 역할을 더욱 더 억제시켰으며 이는 계속해서 민영화 등을 맹신적으로 추진하게 만들었다(B3).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조동성, 2012: 38).

그러나, 금융자본주의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자본주의 3.0은 2008년 9월15일 그 당시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의 합리성과 자유경제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함께 붕괴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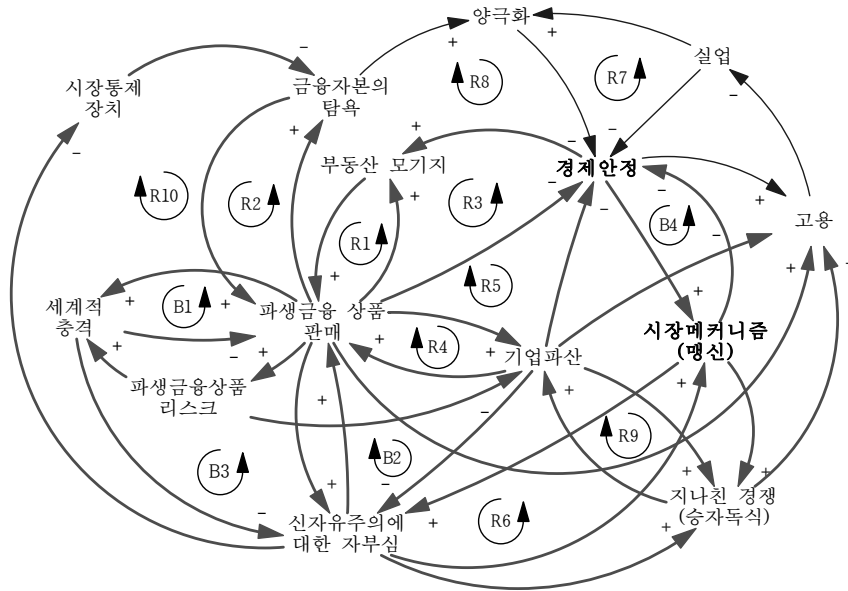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3.0의 위기는 시장근본주의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오판과 오만 그리고 비윤리적인 탐욕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고(B1), 양극화가 증폭되는 의도하지 않은 악순환구조들로 인해 초래되었다(이정진, 2012:202-216).¹²⁾ 성공한 몇 개의 정책들과 그로인한 시장메커니즘의 맹신과 자부심은 금융자본으로 하여금 부실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만드는 ‘탐욕의 악순환’ 이라는 덫에 빠지도록 만들었다(R1, R2, R3, B4, R5, R6).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자부심이 억제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았고(B2, B3), 오히려 더 금융자본의 탐욕을 키워주는 양의피드백 루프만이 작동되었다(R10).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메커니즘이 추구했던 경쟁은 지나친 경쟁과 그에 따른 승자 승 독식을 점점 더 강화시켰고(R10), 이는 정부의 불개입으로 인해 더욱 확산되어 기업파산의 급증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노동자의 증가를 초래하여 실업과 양극화를 가져왔다(R7).¹⁴⁾ 신자유주의자들의 자본주의 3.0은 금융자본가들로 하여금 탐욕에 눈 멀고

12) 신자유주의가 효과적인 부의 창출과 배분에 실패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자기자본수익률과 경쟁우위 같은 지표에 지나치게 집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Meyer & Kirby, 2012:66-75).

13)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그들의 논리를 시장에서 벗어나 심지어 복지개혁, 도시정비, 이민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까지 확장하려고 하였다(Munck, 2010:235-246).

14) 이는 2008년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리먼 브러더스를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Kaletsky, 2010).

양극화라는 저주의 노래를 들으며 어딘지 모르는 파국으로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이라는 배를 몰고 가게 만들었다(R7, R8, R9, R10) .



[그림 7] 자본주의 3.0의 위기에 대한 인과지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3.0을 ‘고삐 풀린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 3.0은 자본주의 2.0 시절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를 초래하던 정부의 시장개입을 억제하려는 음의 피드백 루프라는 고삐를 잡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양의 피드백 루프라는 채찍질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의 손은 음의 피드백 루프라는 고삐를 제대로 움켜쥐기도 전에 오히려 그들의 논리로 무장한 금융자본가들이 탐욕이라는 일탈강화적 양의피드백 구조로 날뛰도록 방치한 탓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자본주의를 붕괴직전의 위기로 몰고 가고 말았다 (조준현, 2010:67-84; Duménil & Lévy, 2011).

3.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방향: 우리나라 자본주의 4.0에 대한 방향논의

이전의 자본주의 진화단계에서처럼 자본주의 3.0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양극화를 초래하였지만 자본주의 4.0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게 하는 데에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었다. 자본주의 4.0의 진화방향에 대한 논의는 자본주의 3.0에 내재 되어 있던 시

장근본주의의 모순, 즉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와 시장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심화되어 가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모두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시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적응하고 협력하는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4.0으로의 새로운 진화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3.0에 대한 위대한 전환으로서 자본주의 4.0을 ‘적응성 혼합경제(Adaptive Mixed Economy)’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응성 혼합경제는 정부와 기업을 대립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보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쟁시장과 효율성이 통제되는 시장이 신중하게 결합된 경제시스템이다. 또한, 적응성 혼합경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제도, 규제, 경제원칙들을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성 있는 시스템이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이란 이러한 적응성 혼합경제를 통해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유연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결정을 내리고, 자본주의를 견고하게 회복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Kaletsky, 2010).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주장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개념 또한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다. 마이클 포터는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월가에서 분노의 시위가 확산되고,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수십 년간 단기 재무성과를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가 고객의 요구를 외면했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사회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의 새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유가치창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자본주의는 새로운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방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Porter & Kramer, 2011: 62-77; 조동성, 2013: 6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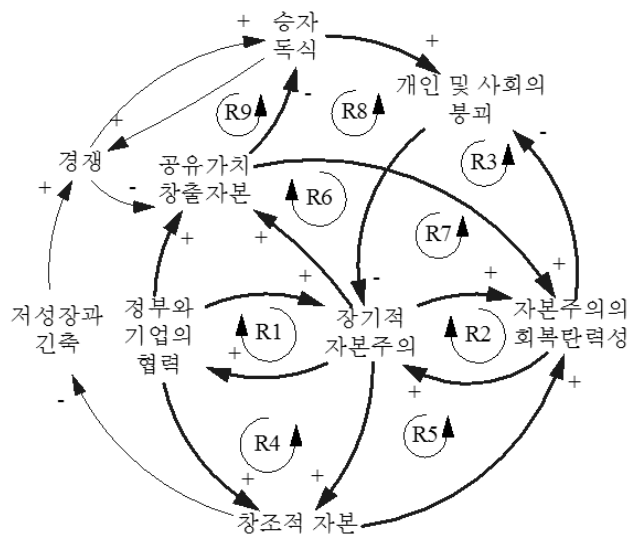
한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08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하며 유익한 방식으로 이기심을 활용하지만 그것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혁신가와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로 불렀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시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사회적 인정을 얻을 수 있

는 방식이다(Bill Gates, 2008).

한편, 메이어와 키비(Meyer & Kirby, 2012:66-75)는 자본주의가 투자수익률과 경쟁우위라는 지표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스스로 위기에 직면하는 ‘생물학적 자살’을 초래했다고 보고 고삐 풀린 자본주의(Runway capitalism)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더라도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적 공헌에 힘을 기울이는 등 경제생태계를 고려하는 자본주의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맥킨지 & 컴퍼니의 CEO 도미니크 바턴(Domonic Barton)은 자본주의가 분기적 성과에 집착하다 ‘대침체(Great Recession)’의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분기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으로(5-7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통해 기업의 동기유발 방식과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직원, 협력체, 고객, 채권자, 지역사회, 환경 등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봉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장기적 자본주의(Capitalism for the long term)’를 주장하였다. 바턴은 이러한 장기적 자본주의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강하고(stronger), 회복탄력적(resilient)이며,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Barton, 2011:84-91).

한편,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자본주의 4.0 시대가 직면하게 되는 미래사회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사회가 ‘뉴 에브노멀(new abnormal)’ 시대라는 것이다. 뉴 에브노멀이란 ‘새로운 혼돈 또는 운 비정상’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이



[그림 8]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방향

매우 높고, 기존이론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뉴 애브노멀에 대해 루비니(Nouriel Roubini) 와 브레머(Ian Bremmer)는 저성장과 긴축에 따른 피로감, 지나친 소유권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대라는 말한다(연합인포맥스, 2013.7.23.일자.)

이러한 뉴 애브노멀 시대에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계속해서 진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앞에서 살펴 본 자본주의 4.0시대의 새로운 진화 방향에 대한 주장들을 검토하여 시스템사고를 통해 종합하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의 인과지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유가치 창출자본과 창조적 자본, 그리고 장기적 자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가장 기본이 된다(R1, R4, R6). 또한 장기적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가면 자본주의의 회복탄력성도 선순환구조를 그리며 증대될 것이다(R2). 계속해서 공유가치 창출자본과 창조적 자본은 자본주의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R5, R7). 이러한 양의 피드백 구조가 작동되면 특히 공유가치 창출자본의 확대에 의해 자본주의 3.0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진 위기인 양극화를 초래하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승장독식의 구조로 인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을 완화시켜 이로 인해 공유가치 창출자본주의가 더욱 더 확대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 가능함을 보여준다(R9).

공유가치 창출 자본으로 인해 승자독식이 개선되고 그로인해 개인 및 사회의 붕괴가 감소하게 되면 이는 장기자본주의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계속해서 공유가치 창출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장독식 구조를 완화하여 개인 및 사회의 붕괴를 줄여나갈 것이다(R8). 그러나 공유가치 창출 자본이 저조하면 그 반대가 되어 승자독식과 개인 및 사회의 붕괴를 증폭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될 것이다. 공유가치 창출 자본주의의 강화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4.0이 나아가 할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장기적 자본주의 진화구조 내에서 공유가치 창출자본과 창조적 자본을 강화해 나가게 되면 자본주의의 회복탄력성이 형성되어 이를 통해 개인 및 사회의 붕괴위기가 줄어들거나 붕괴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R3).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서구자본주의 및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보다 발전하기 위하여 모색해야만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방향으로서 누구든 실패하거나 패자가 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본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 즉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자본주의 진화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지렛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은 특정한 시각에서 또는 몇 개의 이론들을 통하여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연구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좀 더 동태적이고 구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1.0에서 4.0까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 논문에서 구분한 자본주의의 1.0은 ‘자유방임적 고전자본주의’, 자본주의 2.0은 ‘정부주도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3.0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4.0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적용성 혼합경제’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화과정에 대한 구분은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도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서 각 단계의 자본주의가 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성장하던 자본주의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시스템사고에 입각하여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의 중요한 분석결과를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동태성, 즉 자본주의의 성장, 위기, 그리고 새로운 전환이 자본주의 체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양의 피드백 구조와 음의 피드백구조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1.0에서 4.0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는 각 단계별로 의도된 성장의 피드백 구조와 의도하지 않은 위기의 피드백 구조, 그리고 이전 단계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반성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피드백 구조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은 그 자체가 매우 동태적이며 인과순환적인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진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은 무한히 성장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장과 자기억제가 교차적이고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경로의존적 구조로서의 특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모든 자본주의 진화과정은 거의 유사하게 각 단계의 초기에는 발전적인 성장체계가 형성되었으나 바로 이 성장체계로부터 구조화된 위기가 증폭되었고, 바로 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존의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각 단계에서는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성장과 위기의 특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종

언이 고조되면서,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자본주의 4.0의 진화방향으로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자본주의(Resilient capitalism)’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과 기업은 언제나 실패할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이 나서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활동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쟁에서 실패(실직, 도산 등) 하더라도 언제나 빠르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의 역량(resilience)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해 주어 자본주의 체제에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동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 원. (2012). “자본주의: 의미의 역사”. 『역사와 문화』 24:329-346.
- 구춘권. (2008). “유로자본주의의 형성에 대한 조절이론적 설명”. 『國際政治論叢』, Vol.48 No.4: 141-164.
- 김동환. (2004). 『시스템사고』. 선학사.
- 김미경. (2012). “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 『국제정치논총』, 52(2): 311-336.
- 김병권. (2012). “자본주의 ‘오만’이 불러온 ‘occupy’ 투쟁”. 『민족』, 21:76-81.
- 김성구. (2011).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 가독점자본주의론의 시각』. 그린비.
- 김수행. (2011).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 『마르크스주의연구』, 8(3): 12-25.
- 김수행 · 김성구. (2011). “세계대공황인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8(4): 255-273.
- 김진영. (2013). “베이징 컨센서스와 자본주의 4.0 : 동아시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위한 합의의 탐색”. 『CHINA연구』, 15:27-65.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매일경제신문. (1983). “케인즈 이후의 경제학 어디로 가나”. 2월16일자.
- 문화일보. (2011). “자본주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진화할 뿐이다”. 8월19일자.
- 박문각. (2014). 『시사상식사전』. Naver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2014년 9월10일 확인).
- 백승욱. (2001). “역사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 『경제와 사회』, 52:8-38.
- 브리태니커사전. (2014). “자본주의”. (<http://www.britannica.co.kr/>, 2014년9월5일 확인)
- 서문기. (2003). “신기술혁신과 장기파동이론”. 『한국사회학』, 37(6):33-53.
- 신중섭. (2011). “자본주의 4.0’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철학과 현실』, 91:219-227.
- 신중섭. (2014). “아담스미스의 도덕 감정과 이기심” .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4-01.
- 연합인포맥스. (2013).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7월 23일자.
- 오키시오 노부오(저), 최종민(역). (2012). 『현대자본주의와 경제학』. 화산미디어.
- 위키백과. (2014a).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http://ko.wikipedia.org>,2014년 10월 10일 확인)
- 위키백과. (2014b).“자본주의”.(<http://ko.wikipedia.org>, 2014년 11월 15일 확인).
- 윤상우. (2010).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비교자본주의론의 전망”. 『한국사회』, 11(2):3-36.
- 이병천 · 옥우석. (2013).“조절 이론의 진화와 전망”. 『사회경제평론』, 42: 139~176.
- 이정전. (2012). “세계경제위기와 새로운 자본주의”. 『철학과 현실』, 94: 202-216
- 조동성. (2012). “자본주의 5.0 시대의 경제민주화”. 『전문경영인연구』, 15(3): 23-47.
- 조선일보. (2008). “위기 때마다 ‘합리성의 엔진’ 발동... 자본주의는 진화했다”. 10월 15일자.

- 조선일보. (2011).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8월2일자.
- 조선일보. (2011). “자본주의 4.0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 11월19일자.
- 조준현. (2010). “신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인물과 사상』, 148:67-84
- 최종태. (2011). “자본주의 4.0시대의 사회적기업과 경영학”. 『사회적기업연구』, 4(2): 5-49.
- 한성안. (2004). “지역혁신체제와 사회적 자본”. 『기술혁신연구』, 1(1):135-160.
- Aglietta, M. (1979).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 NLB.
- Arrighi, Giovanni.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 Barton, D. (2011). “Capitalism for the long term.” *Harvard Business Review* 89.3: 84-91.
- Braudel F(저), 주경철(역). (1997). 『물질문명 · 시장경제 · 자본주의』.까치.
- Duménil, G., & Lévy, D. (2011). *The crisis of neolibe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Gates, B. (2008). “A New Approach to Capitalism” . Davos Forum, World Economy Forum.
- Geoffrey M. Hodgson, Makoto Itoh, Nobuharu Yokokawa. (2001). “Capitalism in evolution”. (<http://www.gbv.de/dms/sub-hamburg/326714502.pdf>, 2014년10월21일 확인)
- Hall, P. A., & Soskice, 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 Heilbroner, R., Milberg W.(저), 홍기빈(역). (2010). 『자본주의-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 Kaletsy, A. (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Public Affairs.
- Meyer, C., & Kirby, J. (2012). “Runaway capitalism”. *Harvard Business Review*, 90(1/2): 66-75.
- Munck, R. (2010). “Globalization, crisis and social transformation: a view from the south”. *Globalizations*, 7(1-2):235-246.
- Porter M.E., Kramer, M.R. (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62-77.
- Scherer. F.M. (2010). “The Dynamics of Capitalism”. Harvard Kennedy School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RWP10-001.
- Schumpeter(저), 변상진(역). (2011).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한길사.
- Schumpeter, J. (1939).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2vol). McGraw-Hill.